

안전관리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고용부 '건설산업 안전보건리더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해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9월 16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건설산업 안전보건리더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기권 고용부 장관,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등 50대 건설업체 최고경영자 40명이 참석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올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감소하고 있으나 국민이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고위험 건설현장은 중점관리해 대형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 장관은 “대형 건설업체 최고경영자가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확대하는 등 건설재해의 획기적인 감소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장관은 건설재해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용부는 원청이 모든 하청업체의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청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하청을 맡긴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청은 법적·행정적으로 하청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공동 책임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안전 최우선 경영'을 위해 본사의 안전관리 조직을 최고경영자 직속으로 확대·개편하고, 최고경영자가 직접 현장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